

“의천사상 종합적 평가 필요”

제4회 천태 국제학술대회서 한·중·일 학자들 한목소리

천태종 개창조(開創祖) 대각국사의 의천 스님 열반 900주년과 이 달의 문화인물 선정을 기념하는 제4회 한·중·일 천태 국제학술대회가 대각국사의 천과 동아시아 불교란 주제로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천태종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한 국내 외 학자 7명은, 그간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머무름으로써 의천 스님의 불교 사상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때문에 화엄종과 천태종의 관계, 천태종과 선종의 관계 등 아직도 혼란을 빚고 있는 주제에 관심이 모아졌다.

중국 인민대학 불교종학이론연구소 장봉희 교수는 “대각국사문집”을 살펴보면 그가 종종 교관(敎觀)을 언급할

의천불학의 성격
“전통적 천태교관
완전 동의 안했다”

— 中 장봉희 교수

때 가리키는 것은 화엄교학이 천태교관이 아니었다”며 “의천이 비록 해동 천태종의 개창조이지만 그 자신은 전통적인 천태 교관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았고, 화엄을 주로 전하며 천태를 함께 전했다는 것이 의천 불학의 총체적인 성격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사상’을 발표한 지창규(중국대 강사) 씨는 “문집”을 보면 화엄종 색채가 두드러져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대각

“당시 화엄종 있는데 천태종 개립 까닭은 선종 계도 위한 것”

— 韓 지창규 씨

국사의 사상을 화엄사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며 “천태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유·불·도 삼교융합과 교관쌍수 같은 천태의 융합적 특징이 의천의 불교 사상의 중심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지 씨는 또 당시 교종의 대표적인 종파로 화엄종이 있었는데도 천태종을 개립하였던 것은 선종의 계도를 위해서라는 주장을 폈다. 지 씨는 “기존의 화엄종이 선종을 포함하기에는 관문(觀門)이 빈약



△대각국사의 열반 900주년 기념 제4회 천태국제학술대회가 대각국사의 천과 동아시아 불교를 주제로 16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렸다.

하므로 관문이 떨어지지 않는 천태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리영자 동국대 명예교수는 대각국사 이후의 법권을 고찰한 주제 발표에서 “선종의 다섯 산문의 고승들이 초기에 7백여 명이나 참여했고, 의천 문하에 직접 참여한 무리도 3백여 명이 있다”며 “의천의 법을 계승하려는 천태 법권은 이를 1천여 명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리 교수는 이어 금석문과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의천→교

→덕소→요세’로 이어지는 법맥을 정리했다.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적 위치”를 발표한 최병현(서울대) 교수는 요세 이후 의천의 불교 전통이 단절되고 만 이유에 대해 “천태종 창립과 4개 종단 체제로의 불교계 개편이 엘리트 불교, 종파 불교적 성격을 띠다 보니 지방에 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nia.com

高僧 다시보기

원묘국사와 백련결사

요세(世, 1163-1245)는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개창한 천태종을 부흥시킨 인물이며 보조국사 지눌의 수선사 결사와 더불어 고려 후기 양대 결사운동인 백련결사를 일으킨 당시의 불교계에 참신한 기풍을 일으킨 고승이다.

스님은 지방호족의 수장인 호장 출신으로, 과거에 급제하고도 당시의 유행에 한계를 느껴 12세에 출가하였다. 천태사상을 수학하던 스님은 36세 되던 해인 신종 1년(1198) 불 천태종 사찰인 개령의 고봉사에서 개회된 법회 분위기에 크게 실망하고는 동지 10여 명과 더불어 명산을 유력하다가 지눌 스님의 권유를 받고 수년간 함께 수행하였다.

46세 되던 해인 회종 4년(1208) 전라도 영암의 약사사에 머물 때 스님은, 중국의 영명연수(永明延壽) 스님이 《선종유심결(禪宗無心訣)》에서 지적한 120가지의 병을 극복하려면 천태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중들과 함께 비록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일지라도 쉬는 일이 없이 날마다 53불 주위를 12번이나 도는 참회행을 실천하였다.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스님을 ‘서삼회(徐三悔)’라 불렀다고 한다.

그 뒤 스님은 최표·최인 등의 거사들이 마련하여 중창한 감진의 만덕사에서 고종 19년(1232)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열어 법화삼매(法華三昧)와 구생정토(求生淨土)를 닦으며, 천태의 법화삼매참회

날마다 53불 12번 도는 참회행 천태사상 바탕 사회정화 운동

(法華三昧懺悔)에 의해 참회행을 실천하였다. 마침내 고종 23년(1236)에 스님의 문도인 천축 스님으로 하여금 백련결사문을 짓게 하여 명실상부하게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이보다 앞선 1190년에 지눌 스님이 정회결사문을 발표하여 수선사결사를 전개했던 것과 동일한 운동이다.

스님은 항상 세 벌의 옷과 바투 하나로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법화경(法華經)》 1부, 《준제신주(准提神咒)》 1천 번, 미타불을 1만 번이나 염송하였다. 스님의 이러한 결사운동은 염불을 주로 수행으로 한 중국 동진의 해원(慧遠, 334-416) 스님의 백련사(白蓮社)의 결사운동을 표방한 것이지만 염불과 더불어 천태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범부의식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또한 지눌 스님이 대혜력(大慧力)을 갖춘 근거를 가진 자만이 수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스님은 비록 막중한 죄를 지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탈할 수 없는 범부일지라도 수행하여 해탈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하여 당시 귀족은 물론 일반사민층에 이르기까지 교화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백련사 2세 정명국사 천인(1205-1248) 스님과 백련사 4세 진정국사 천축(1206-?) 스님으로 이어지면서 천태종 사세를 진작시키기에 이른다. 이렇듯 스님이 전개한 결사운동은 당시 개령종심의 귀족화 보수화된 불교계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도생활로 부처님 본연의 길을 닦고자 한 사회 정화운동이었다.

■한영인/중국대 강사

“교단 내 성차별 여전”

세등 스님, 8경법 폐지 주장

불교 교단 내 성 차별적 제도와 관습이 공론의 장으로 불려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성령연구원소장 정지행가 20일 ‘페미니즘이 종교를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연 학술발표회에서 세등 스님(사진)은 한국 불교의 제도와 관습 속에 살아 있는 남성우월주의를 직접 거론했다. 세등 스님은 8경법의 해체를 위한 페미니즘적 시도’ 주제 발표를 통해 “성 평등적 핵심 교리에도 불구하고 한국 불교의 제도적 형식 속에 불교의 대표적 성 차별적 규정인 8경법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지적하고 “사부대중 공동체로서의 이상적 교단 건설을 위해 8경법은 해체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8경법은 ‘여승 출가(비구니)가 남승 출가(비구)에게 지어야 할 8가지 공경의 법’이다.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이를 불교 교단의 남성우월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해 왔다.

8경법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후대에 삽입된 것이라는, 우리 나라 불교학계의 지배적 주장을 문헌 자료를 통해 반박한 세등 스님은 이어 8경법이 현실적으로 사정된 것이라는 통설에도



이름 불교 교단의 남성우월주의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지적해 왔다.

“백세 비구니라 할지라도 신장 비구에 예를 올려야 하는 것은 25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한국불교의 현실”이라며 반론을 들고 나왔다. 수계(수계, 안거제도, 종단(조계종단) 운영체제 등 제도를 통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8경법의 규정이 가장 확실하게 실행되고 있는 제도로 꼽은 것은 수계 의식의 ‘비구니(비부중(二部衆))에서 구족계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즉 비구니는 비구니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은 후 다시 비구 대중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아야 완전한 수계가 이뤄진다는 제도 때문에 “비구승가에 의존하지 않고는 누구도 비구니가 될 수 없으며, 비구니 승가는 비구승가에 예측될 수밖에 없다”고 세등 스님은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산수화 출현은 선종 영향”

김대열 교수 제기

17일 한국불교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서 ‘선종사상과 산수화 형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김대열(동국대) 교수는 “노장 사상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지금까지의 견해와 달리 산수화는 선종 사상의 영향으로 출현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문인화가 화가의 자아를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

했다. 김 교수는 “상고 시대의 회화는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다”며 “문인화 역시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종교 자체가 반야·열반 등 비교적 외부의 이상을 좇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의 성격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직접 깨닫고 체험하는 자성성불(自性成佛)로 변화된 이후에 문인화에서 작가의 심경을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불경보다는 불경의 체화

와 각오(覺悟)를 중요시한 선종은 인간에 대해 궁극적 가치를 부여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수묵 산수화를 통해 형태 자체가 가지는 의미보다 자아와 만물기상의 성정을 표현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산수화가 크게 발전한 당말~오대는 바로 해능의 선종이 흥기한 이후”라며 “선종이 문인화로 스며든 이후 문인화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황동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서 발굴된 통일신라 인공 연못.

분황사 동쪽서 통일신라 인공연못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소장 최맹식은 경북 경주시 구황동 분황사 동편 외곽의 황동사지 전시관 건립 부지에서 발굴중인 통일신라시대 인공 연못 유적을 13일 공개했다. 통일신라시대 인공 연못이 발견되는 것은 경주 안압지와 경주 연강동 연못에 이어 세번째다.

서기 7세기 후반 이후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공 연못은 호안(護岸, 돌을 쌓아 연못 벽을 만든 시설) 길이 180m, 면적 325평 규모로, 연못 안 남쪽과 북쪽에 각각 57평, 112평 짜리 인공 섬이 들어서 있다.

왕궁이나 사찰 건축에 사용됐던 귀면와(鬼面瓦), 연꽃무늬 막새 등기와와 벽돌류 444점, 관병(官瓶, 관에서 쓰는 병)이라 적힌 토기와 그릇 67점, 금동제 판불(板佛, 판에

조각한 불상) 등 모두 545점의 유물이 함께 출토됐다.

《삼국유사》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사료 기록, 출토된 토기와 기와편, 신라의 삼국통일 전후 제작됐던 판불 등이 출토된 것으로 봐 8세기 초반 즈음에 축조된 것으로 연구 추측은 추정했다.

규모는 안압지의 약 15분의 1에 불과하지만, 자연미를 최대한 살린 조형미가 뛰어난 인공 연못의 성격은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7세기 중엽 섣덕여왕이 왕실 원찰로 창건한 분황사의 동쪽 연못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왕궁의 부속시설일 가능성 등도 연구 추측은 배제하지 않았다. 연못의 성격이나 정확한 연혁 등을 밝히기 위한 발굴조사는 2003년까지 계속된다. 권형진 기자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자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부중,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 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홍학하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계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회의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특허

“BBS 불교방송 (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누비 · 바랑 판매 안내

◎ 행복을 기원하는 저희 기원섬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 특징 :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 오자, 만자 무늬를 특허청에 의장등록됨.
- 추동복 : 촉감이 매우 좋고 맨시가 있으며 착용감이 아주편함.
- 누 비 : 고급원단으로 촉감이 부드러우며 소매 끝에 바랑이 들지않게 보온성이 우수함. (누비상하, 누비두루막, 누비방한복, 누비보온복)
- 장 삼 : 추동장삼으로서 아주 가볍고 구김이 많이 가지않는 고급스러운을 더한 장삼.
- 가 방 : 이종방수처리하여 물이 스며들지않고 언제나 모양새가 일정함이 특징.

스님께 가사봉사 보시하면 수발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재팔관을 소멸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F302호
전화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

구분	판매가	
스타일	남·여 150,000	
추동복	저고리 바지, 조끼	남·여 130,000
	두루막	남·여 120,000
누비	동 방	남·여 190,000
	상 하	남·여 160,000
장삼	방한복	남·여 130,000
	보온복	남·여 70,000
(조계종 태고종)		남·여 220,000
승가방	중	28,000
	소	23,000
미당 (연꽃무늬)	30,000	

※ 차이나, 라운드, 신도복 등 다양한 제품을 준비함.